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 보도자료

| 본부장 윤후덕·인태연 | 수석부본부장 민병덕·박용갑

보도일시	2025. 5. 20. (화)	배포일시	즉시 배포
사무국	더불어민주당 을지원국 02-6788-3631	문의	윤후덕의원실 강지영 비서관 02-6788-6904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 “김문수 후보, 플랫폼 규제 견해 밝혀라” 기자회견

- 김문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외치고 플랫폼 규제 대안 無
- 소상공인·자영업자 “플랫폼 기업 규제, 자영업 보호 위한 제도 필요”
- 민생살리기본부 “집권 즉시 플랫폼사업자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할 것”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윤후덕·인태연 공동본부장, 박용갑·민병덕 수석부본부장)가 20일 (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향해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대한 견해를 밝혀라” 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는 “작년 티메프 사태 당시 피해업체가 무려 4만 8천곳, 피해액은 1조 3,000억 원에 달했고,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은 최근 정책과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와 불공정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는 또 “김문수 후보 역시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겠다’ 고 하면서도 정작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 대안 없이 ‘윤석열식 규제 완화’ 만 공허하게 외치고 있다” 며 “김문수 후보는 과도한 수수료 때문에 플랫폼 본사 앞에서 석 달 가까이 천막농성을 하며 ‘필수룩 손해’ 라고 울부짖었던 소상공인과 죽음을 담보로 도로 위에 내몰린 배달노동자들에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망원시장에서 두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김진철 상인은 “쿠팡은 ‘고객을 위한 혁신’ 이라는 미명 아래 중소상인의 숨통을 조여오고, 정상적인 유통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면서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견제하고,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달라” 고 주장했다.

부천 골목상권 자영업자 이호준 상인은 “현재 배달앱은 매출의 10%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고, 광고비 등을 고려하면 자영업자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매출의 40%에 달한다”며 “고객 불만 대응까지 자영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배달앱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수수료 인하, 투명한 운영,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만들도록 정부와 국회가 불균형한 구조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 규제와 독점 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는 꼭 필요한데,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하면서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와 독점 완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을 거부하고 자율 규제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사자와 토끼가 있는 우리에서 사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공정 경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플랫폼 중개수수료를 차별 금지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즉시 공정거래법안을 추진해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끝/



